

UNCED, 그 이후의

<중>

—사회제도 바뀌어야 한다—

지난 호 칼럼에서, UNCED회의 이후에 바뀌어야 할 것으로 <에너지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UNCED회의가 환경문제이니 만큼, 환경정책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고 물어 왔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 환경문제는 환경 그 자체의 문제이기 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라고 해서 환경문제에만 집착해서는 효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여, 우리나라에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자조적으로 대답 했다. 물론, 환경처라는 정부 부처가 있기는 하지만, 그 환경처라는 곳이 나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존재하는 부처가 아니고 정부가 환경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부처니, 그런 부처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일이 있겠는가?하는 생각에서 였다.

각설하고, 환경문제의 근본은 에너지 문제다. 에너지의 사용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필자는 대책의 첫번째로 에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로 사회제도의 개선을 주장한다.

사회의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인식이 잘못되었는지?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사회의 제도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가 공해 유발형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 많은 잘못된 사회 제도중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 몇 가지를 지적한다.

자가용은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유독 자가용차만이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자가용차가 교통수단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자가용차의 선택은 자신의 형편과 도로 그리고 사회의 여러 조건 등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거짓말 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단칸 사글세 방에 살면서도 자가용차를 갖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들의 변은 이놈의 세상이 자가용차로 사람을 평가하니, 집은 비록 단칸사글세 방이지만 자가용차를 굴리지 않으면 사람 대접을 못받는다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돈을 꾸더라도 자가용차를 타고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쉽게 풀 수 있지만, 걸어가서 돈을 빌려면 아예 거지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가용차는 그 소유자의 신분 보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신분을 보장해 주는 자가용차는 되도록 크고 좋은 것이어야 신분을 더욱 크게 좋게 대변해 준다.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우수개가 있다. 호텔이나 골프장 같은데에 가면 크고 좋은 차를 타고 온 사람에게는 대접이 후하지만 그렇지 않은 차를 타고 가면 팔세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팔세는 호텔의 문지기나 골프장의 관리뿐만 아니다. 심지어는 교통을 단속하는 사람(양식있는 교통경찰관은 아닐 것이다. 일부 지각 없는 보조원일 것이다.)으로 부터도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얼마전 어느 일간 신문사의 경제부장으로 있는 친구로 부터 들은 이야기다. 강남에 있는 모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주부들이 최근 그들의 자가용차를 중형차 이상의

대책

고급 승용차로 바꾸고 있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60평 이상의 아파트단지로 그에 걸맞게 한 집에 자가용차가 2~3대 이상 썩 있다.

즉, 그집의 가장이 타는 자가용차와 그 가장의 부인이 타는 자가용차, 그리고 그 가장의 아들이나 딸이 타는 차 등이 보통인데, 그 가장의 부인이 타는 차가 <소나타> 이상의 고급 승용차로 바뀌고 있는 이유가기가 막힌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니>나 <르망>을 타던 부인네들이 너도 나도 고급 승용차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으로 팔세를 피해 보자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소형 자가용차를 운전하다가 작은 교통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면 봐 주기는 커녕 “여편네가 집에서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할 일이지 자가용은 무슨 놈의 자가용이냐”하는 조로 면박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크고 고급스러운 자가용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에 걸리면 단속자의 말씨 부터 부드럽다는 것이다. 적어도 사모님으로써 대접을 받으면서 단속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벼운 교통 위반은 “다음부터 주의하십시오”라는 안내로 끝난다고 한다.

이렇게 자가용차의 크기에 따라 단속이 차별되는 것은 아직 이 나라의 자가용차는 교통수단이기 보다는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보아지기 때문이다. 즉, 사회의 제도가 권력과 부가 존중받는 까닭에 있는 것이다.

기름 한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배기량이 큰 차일수록 배기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고 주차난, 교통난 등으로 고통받으면서 너도나도 크고 비싼 차만 선호하는 이런 사회적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도시의 대기오염은 개선할 수가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니>나 <르망>을 타던 부인네들이 너도 나도 고급 승용차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으로 팔세를 피해 보자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소형 자가용차를 운전하다가 작은 교통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면 봐 주기는 커녕 “여편네가 집에서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할 일이지 자가용은 무슨 놈의 자가용이냐”하는 조로 면박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크고 고급스러운 자가용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에 걸리면 단속자의 말씨 부터 부드럽다는 것이다.

공공제도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자동차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교통문제에 관련된 사회 제도에 대하여 더 언급을 하겠다.

우리나라의 교통 신호등은 자동차에게는 후하고 사람에게에는 무척 인색하다. 말하자면, 사람의 가치를 자동차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거리의 건널목은 산책로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거리 경주용 트랙도 아니다.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한 번 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도에 편하게 서서 길을 건너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길 건너편 신호등을 똑바로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 위에서 있기 보다는 한 발 차도에 내려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면 잽싸게 길을 건너기 시작한다. 거의 뛰다시피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건넌다.

그렇지 않고는 길 한 가운데 간혀, 위험한 곡예를 하는 바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공의 제도가 사람들을 쫓고 성급하게 만듦으로써 심성도 쫓겨 매사에 성급해지기 마련이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회제도는 그 제도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건 사회제도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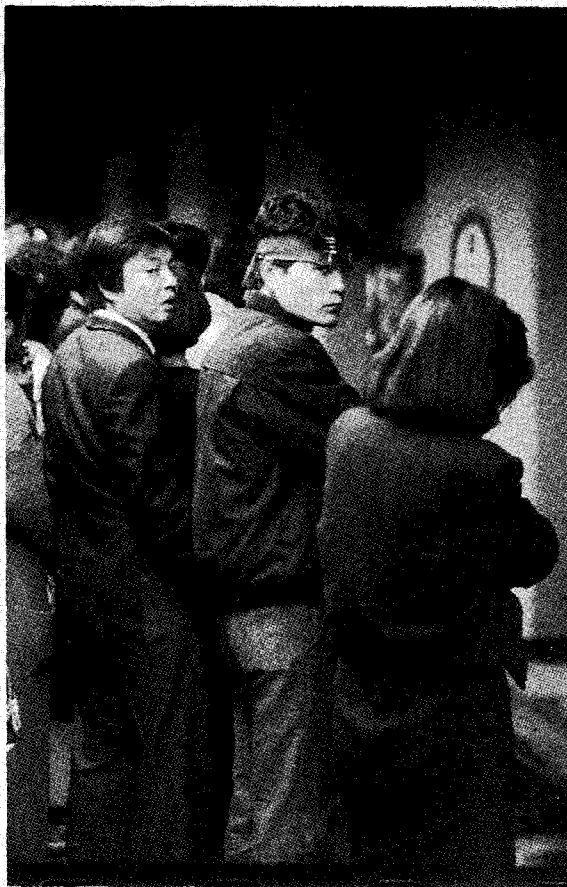
그래서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런 불공정한 사회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글과 강의로 호소하고 있지만, 나아 지기는 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어 우울하다.

자동차 보다 못한 서민의 삶이라면 이 나라의 환경은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필자는 골목을 지나다가 뒤에서 자동차가 길을 비키라고 경적을 울려도 결코 비키지 않는다. 편하게 앉아서, 힘들게 걸어가는 사람을 깔 코는 듯한 이런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줄 서기에 대하여

최근 들어, 줄 서기를 배운 우리 국민에게 사회제도는 무조건 줄만 서면 되는 것으로 강요하고 있다.

줄을 왜 서는 것인지? 그 줄 서기의 기본적인 조건도 모르는채 무조건 둘 이상이면 줄을 서야 한다는 식으로 계도하다 보니, 줄만 서면 되는 것으로 알아 더욱 불편하고 불쾌한 줄 서기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줄을 서지 않는다. (하기야 무슨 좋은 냄새라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 줄을 설 필요가 있는가?) 화장실 밖에서 줄을 선다. 사람이 나오면 다음 사람이 들어가 빈 칸에 들어가 볼 입을 본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나오면 또 밖에 줄 선 차례로 들어간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간단한 줄 서기인가? 이토록 줄 서기의 합리화가 사회적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공중 전화의 경우 다음 차례를 기다려 서 있는 사람은 전화거는 사람이 빨리 나오기를 독촉하는 것인지 줄서기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화를 빨리 끊지 않는다고 살인까지 하는 세대가 된 것이다.

필자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공원에서 진짜 줄서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공원에 공중전화기가 있었는데, 마침 한 사람이 전화를 걸고 있어, 그 공중전화 문에서 1미터 정도쯤 떨어져 서서 전화를 다 걸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화 거는 사람 뒤에 바짝 붙어서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들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빨리 걸으라고 위화감을 주는 것인지 모르게 서 있게 마련이다).

얼마 지나, 전화를 걸던 사람이 전화를 다 걸고 나오기에 필자는 전화를 걸려고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 서려하자, 누군가 뒤에서 필자를 불러 세웠다. 나이 많은 할머니였다.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다가 오면서 자기 차례라는 것이었다.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생떼가 아닐 수 없다. 급한 일이 있어서 양보해 달라고 한다면 양보할 수도 있고, 또 동양인의 예의로 따져 나이 많은 노인이라 먼저 전화를 걸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할머니의 말인 즉, 자기 차례라는 것이다. 그래서 의아해 하는 표정으로 “분명히 내가 이 앞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할머니 차례냐”고 물으니 이 할머니는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는 표정으로, 자기 다음에는 저쪽 벤취에 앉아 있는 남자 차례고, 그 다음에는 저편 나무 밑에 앉아 있는 저 청년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쪽 벤취에 앉아 있는 저 부인일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공원 같은데에서 전화를 걸 때는(전화 부스에 사람이 있을 경우) 먼저 그 공중전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해 두고 가까운 벤취 등에 앉아 차분히 다음 차례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즉, 나 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눈여겨 보고 있다가 전화를 걸던 사람이 나오면, 나 보다 먼저 와 있던 그 어느 사람이 전화를 걸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전화를 걸게 되는 자연스러운 약속의 줄서기인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애써 국민학생들 같이 나란히 줄을 선다고 해서 줄서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 보다 먼저 온 사람이 전화를 걸 동안 편안하게 앉아 있다

가 분명히 나 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는데도 빈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화를 걸기 위해 그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다음 차례가 내가 되는 것이다.

공중 화장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자 화장실의 경우는 그래도 볼 일을 빨리 볼 수 있어 별 문제가 없지만, 여자 화장실의 경우는 사정이 딱하다.

공중 화장실의 경우 여자들이 볼 일을 보는 칸이 대여섯개가 되어도 여러 사람이 몰리면 부족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사람마다 짧은 줄을 찾아 서게 마련인데, 어쩌다 앞의 사람이 오래 지체하게 되면 마냥 서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들어와 다른 줄에서 있던 사람이 먼저 볼 일을 보고 나가는 불공평을 겪게 된다.

고속버스 휴게실의 공중 화장실의 경우는 그래서 전 쟁터가 되고 당혹스러운 곳이 된다. 악취가 풍기는 화장실에서 눈치 작전을 피야 되는 한국식 공중화장실에 비해 미국의 공중 화장실은 보다 합리적이다.

미국의 경우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줄을 서지 않는다. (하키야 무슨 좋은 냄새라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 줄을 설 필요가 있는가?) 화장실 밖에서 줄을 선다. 사람이 나오면 다음 사람이 들어가 빈 칸에 들어가 볼 일을 본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나오면 또 밖에 줄 선 차례로 들어간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간단한 줄서기인가?

이토록 줄서기의 합리화가 사회적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생활면에서 합리적인 생활을 유도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개선되어야 할 사회제도는 엄청나게 많다. 어쩌면 앞에 제시한 문제점은 문제점이라고 할 것도 없는 당연지사 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는 생활중에 많은 불공평과 손해를 입고 산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환경문제와 같은 상식의 문제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아니 공해를 많이 양산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사회제도를 과감히 고쳐야 한다. 그걸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의 질을 조성하는 길이다.

〈筆者：本會顧問／UNEP 글로벌 500委員〉